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영어영문학과 17)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학부시절부터 대학교 교직원 및 공공기관으로 진로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업무 강도 및 고용보장성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선택지를 좁혀가는중, 본 집과도 가깝고 대학이자 공공기관인 현재 직장으로 선택을 집중했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공기업을 동시에 준비했기에, 공기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비슷하게 따라하는 자격증 및 교과목이 있습니다.
저는 느즈막히 4학년 쯤부터 공기업으로 진로를 선택하였기에, 서류에서 가산점이 되는 경영쪽 교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비교과적으론 봉사활동 내역을 준비했습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슬럼프가 오고, 진로에 대한 명확함이 보이지 않을때가 취준생 시절에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종종 즐겨봐서, 저와 같이 취준생 브이로그 등을 보았었습니다..ㅎㅎ

아주대 대학원 대학원생 (국어국문학과 19)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지금까지 저의 진로 선택 기준은 다음 3 가지와 같습니다.

첫째,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분야 이어야 됩니다. 둘째, 살고 먹을 수 있기 위해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됩니다. 셋째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됩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전공 과목, 특히 본인의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수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야든지 지식도 많이 배우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나중에 그 분야에 진출할 때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 지식 뿐만 아니라 다른 교양 수업도 듣는 것과 학교의 동아리 활동, 행사 참가, 문화체험 등과 같은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나중에 한국어 강사가 되고 싶은데 한국어에 대한 지식만 가져가서 강의를 하면 좋은 강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며 한국 문화, 한국생활, 한국 여행에 관련 이야기를 넣어서 강의를 하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외국어, 컴퓨터 활용, 의사소통, 방법 등과 같은 기능들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저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치지고 외로웠습니다. 혼자 울었을 때가 아주 많았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한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는 "고생했다" 또는 "잘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힘든 하루가 끝나고 자기 전에 항상 본인에게 "오늘도 고생했어, 오늘도 참 잘 했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가니까 이제 대학교 졸업하기도 했고 새로운 꿈은 생겨서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혼자 살고 공부하는 일이 누구에게도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면 언젠가 내가 원했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대 강사 (사학과 06)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일반적으로 대학원 진학의 이유를 크게 두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학문적 궁금증과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대학 졸업 후 하고자 하는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이거나 취업 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평소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역사'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역사 쪽 대학원에는 연구자가 되는 것 외에도 박물관이나 발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도 있으니 자신의 적성에 따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교과적으로는 먼저 인문학부 강의나 사학과 전공 강의 중 입문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있어 하는 시대, 지역, 혹은 상세분야를 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그것과 관련된 심화수업을 통해 그 분야를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여, 자신과 맞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사료 및 강독과 관련된 수업을 통해 역사 사료와 친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과 외에도 자신이 정한 분야와 관련된 사료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예를 들어 한문 혹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아주대 사학과는 아주대학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과학연구소, 디지털역사 연구센터를 통해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분야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사학과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니 졸업 진로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야가 있다면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검찰직 공무원 (영어영문학과 15)

▼ 지금의 진로 선택 기준

사실 저는 막연히 공무원은 하고싶었지만 많이 알아보고 이 직렬을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검찰직) 그냥 시험 과목을 보고 선택과목이 재밌겠다 싶은 것을 선택했어서 여러분은 어떤 이유든지 공무원이 되고 싶으셨다면 공무원 중에서도 “어떤” 공무원을 할 지 잘 알아보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은 특이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뿌듯한 보람을 느끼며 일이 곧 삶이 될 수도 혹은 그냥 직장으로 내 삶은 따로 지키며 살 수도 있는 거 같습니다.

▼ 진출 분야를 위한 교과-비교과 준비 방법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다른 어떠한 자격없이 오로지 시험으로만 당락이 결정되는 직업입니다. 저는 공단기(법검단기, 국어 이선재 영어 이동기, 한국사 문동균, 형형소 백광훈)인강으로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어플 열품타 활용) 처음에 인강을 고르실 때 자신에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시는게 준비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잘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는 개념서 위주보다는 요약본, 문제풀이 회독, 실전 모의고사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생소한 내용이니 개념인강을 들겠지만 하나하나 기억하려하기보다 중요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하면(문제풀이 인강에 들어갔을 때 쯤엔 -3일을 계산해서 복습했습니다 ex. 7회차 모고 공부한 날엔 이전에 푼 4회, 1회 복습)요약본 정도의 얇은 책의 내용은 충분히 내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꼭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업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또는 추천 영상/음악)

저도 했으니 후배님은 당연히 가능!